

名前:

저는 요즘도 신문, 잡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신문, 잡지가 있어도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, 인터넷이 사람이 읽을 때의 분위기나 느낌까지 전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잡지,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보를 얻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, 그 분위기나 느낌도 좋아하는 것입니다. 책의 경우도 같습니다. 지금은 전자책이나 노트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아직도 노트북이 아닌 책을 읽고 있습니다. 그것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쁨과 종이 자체가 주는 향기를 느낄 때 읽는 것이 더욱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, 신문, 잡지로 읽을지 인터넷으로 읽을지는 자신의 자유이지만, 신문, 인터넷은 요즘도 계속 남겨두고 즐겨한다고 생각합니다.

인터넷이 있으니까 요즘도 신문, 잡

지가 없어도 된다. 이것은 바보같은 생각입니다. 그것은 지름은 사람과 사람이 진짜 대면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말을 하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젠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